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7.05.(제3761)

#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363-1452 ·Fax.393-8148  
·목사관.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 감사

주님, 내 평생의 날 동안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받으소서.

때로는 나의 앞길이 어둡고

거친 폭풍이 불어와 나를 흔들 때에도,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자비의 손길이

나를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눈물 흘리던 밤이 지나고 맞이하는 아침,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과 호흡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Henry Wadsworth Longfellow)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http://www.ajmc.or.kr)

#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6주  
(맥추감사주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550장(1,3절)...다 같 이 ※영 광 송.....1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  
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  
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 86:6-7)

※경 배 찬 송.....8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기보다  
쉽게 잊어버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105번(감사절)...다 같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  
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 도.....박범택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 찬 예 식.....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레 자

구 약 | 시 편 50:23

신 약 | 누 가 복 음 17:11-19

찬 양...찬양하라 왕 되신...찬 양 대  
우리 하나님

증 언.....권오진 목사

『인사를 잘하면 인사가 됩니다』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첫단추기도회 START ON

-제 4, 9 여선교회 주관 -  
오후 2시 사회: 권은정 권사

조용한 기도 ..... 다 같이  
찬 송 ..... 85장 ..... 다 같이  
기도 ..... 장계순 권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0:1-11... 남윤미 권사  
찬 양 ..... 아 멘 찬양대  
증 언 ..... 최진용 목사

### 『평안을 “심는” 일꾼들』

합심기도 ..... 권오진 목사  
특송 ..... 회원 일동  
헌금 ..... 524장 ..... 다 같이  
소식 ..... 권오진 목사  
축도 ..... 권오진 목사

다음 주 : 목장별 목장모임

##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 지난 주 통계

| 예                   | 38  | 교 회 학 교     |     |
|---------------------|-----|-------------|-----|
| 주 일 1 부 예 배         | 38  | 영 아 부       | 10  |
| 주 일 2 부 예 배         | 274 | 유 치 부       | 13  |
| 주일실시간방송예배           | 39  | 유 초 등 부     | 22  |
| 첫 단 추 기 도 회         | ·   | 중 · 고 등 부   | 18  |
| Global GK for Water | 230 | 청 년 부       | 15  |
| 수 요 성 서 연 구         | 53  | 예 수 소 망 반   | 29  |
| 수요실시간방송예배           | 13  | 생 명 의 삶     | -   |
| 금 요 성 령 집 회         | 45  | 주 일 성 서 연 구 | 방학  |
|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 28  | 합 계         | 107 |
| 합 계                 | 720 |             |     |

| 현              | 금          |          |            |
|----------------|------------|----------|------------|
| 주 일 현 금        | 1,532,000  | 감 사 현 금  | 2,280,000  |
| 교회학교현금         | 179,250    | 생 일 현 금  | 50,000     |
| 월 정 현 금        | 9,140,000  | 선 교 현 금  | 250,000    |
| 십 일 조          | 17,700,000 | 70주년감사헌금 | 36,940,000 |
|                |            | 맥추감사헌금   | 470,000    |
| 합계 68,541,250원 |            |          |            |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디모데후서 강해  
오석만 목사

## 수요성서연구

7월 8일(수)10:30, 오석만 목사

### 열린다 성경 “나팔절”

본문: 레위기 23장 24절

- 금 주 기 도 : 김은순 권사
- 다음주기도 : 임명숙 권사

##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 예배 및 집회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1 부 예 배     | 주 일 오전 7:00          | 대 예 배 당   |
| 2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1:00         | 대 예 배 당   |
| 첫 단 추 기 도 회 | 첫째 주일 오후 2:00        | 대 예 배 당   |
| 새 벽 기 도 회   | 월-토 오전 5:30          | 중 예 배 당   |
| 수 요 성 서 연 구 | 수요일 오전 10:30         | 중 예 배 당   |
| 금 요 성 령 집 회 | 금요일 오후 8:00          | 중 예 배 당   |
| 장 년 부       | 주 일 오전 10:00         | 대 회 의 실   |
| 영 아 부       | 주 일 오전 11:00         | 영 아 부 실   |
| 유 치 부       | 주 일 오전 11:00         | 유 치 부 실   |
| 유 초 등 부     | 주 일 오전 11:00         | 유 초 등 부 실 |
| 중 고 등 부     | 주 일 오전 11:00         | 중 예 배 당   |
| 젊 은 이 예 배   | 주 일 오후 2:00          | 중 예 배 당   |
| 예 수 소 망 반   | 주 일 오전 8:10          | 중 예 배 당   |
| 목 장 모 임     | 매월 둘째, 넷째주<br>주일예배 후 | 목 장 별     |

## 7월 예배봉사인원

| 구 분  | 1부                         | 2부                     |
|------|----------------------------|------------------------|
| 헌금위원 | 태복수<br>이찬주                 | 박재훈 김보라 권호진<br>허상원 전동순 |
| 안내위원 | 김유임                        |                        |
| 강단헌화 | (김선욱 구용연)                  |                        |
| 수납위원 | 김동수 심영관                    |                        |
| 통계위원 |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br>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                        |

## 지난 주일 증언

# “건물주에서 조물주어로”

구 약 이 사 야 58:6-7

신 약 마 태 복 음 25:35-40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스개 소리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건물주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요. 이런 현실 속에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보다, 매달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임대료 통장의 권세가 더 강력하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 혹은 자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정당한 노력과 지혜로 물질의 부를 이룬 이들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를 이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은 수 없이 많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물질만능주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성을 공고히 쌓아 올려 내 미래만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건물주의 야망을 내려놓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조물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물주의 야망과 조물주의 꿈의 차이: 소유와 나눔**

소위 ‘건물주의 야망’과 ‘조물주의 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와 ‘나눔’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대단히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도 자신의 오락을 구하고, 일꾼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키며, 서로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소위 ‘건물주의 야망’에 사로잡힌 종교인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조물주 하나님을 내 삶의 안전과 소유를 보장해 줄 투자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종교적 대가를 지불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의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주셔야 한다는 계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내 이익과 소유를 채우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곁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반면 온 우주를 만드신 진짜 ‘조물주’ 하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 참된 금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풀어주다, 끊어주다, 치유하다, 나누어주다, 들인다, 입힌다’ 이런 단어들은 움켜쥐고 채우는 ‘소유’의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에너지를 깨뜨려 타인을 살려내는 ‘나눔’의 행동들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손수 창조하신 ‘사람’, 특히 깨어지고 소외된 ‘영혼들’이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세상의 방식은 나에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 굶주린 자, 결박된 자들을 향해 손을 펴는

나눔에 포커스를 둡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담장을 높이 쌓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내 손을 펴서 이웃을 이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펼쳐질 최후심판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임금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의 의인들과 왼편의 악인들을 갈라놓으십니다.

오른편에 선 의인들을 향해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35-36절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이토록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뵈는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라키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보잘것없는, 순위에조차 들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를 뜻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바로 엘라키스토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포커스를 나눔에 두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의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낮은 곳에 당신의 주소를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화려한 빌딩 숲이나 웅장한 궁궐이 아니라, 주리고 목마르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엘라키스토스)’와 당신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계산 없이 그 보잘것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조물

주 예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는 사명의 자리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 조물주의 꿈을 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의 포커스를 소유가 아닌 사명과 나눔에 두고, 조물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11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내 성을 쌓느라 평생 불안해하는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자를 신뢰함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사명으로 받은 자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성자라 불리는 아벨 피에르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프랑스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파리 근교의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사서 수리한 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엠마오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 신부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주’였습니다. 조르주는 살인죄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의 세상은 그에게 더 잔인한 지옥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고, 사회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그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직장도, 머물 방 한 칸도 구할 수 없었던 조르주는 극심한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피에르 신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르주는 신부에게 자신의 처참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호느렸습니다. “신부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저에게 방 한 칸만, 제가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보통의 경우라면, 그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몇 푼 쥐여주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구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는 그 순간 조르주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을 건네며 그의 인생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르주,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줄 방이 없네. 돈도 없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안락함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 있네. 보다시피 이곳은 보수할 곳이 천지인데 내 몸은 너무 지쳐있고, 당장 오늘 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부랑자들을 도울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다네. 조르주, 그러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나와 함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좀 같이 해주게.”

이 말은 조르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고, 오직 사회의 골칫거리로 낙인찍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조르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자신을 ‘도움을 받아야 할 비참한 전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명자’로 대우해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조르주는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엠마오 공동체의 첫 번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불쌍한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 망치를 들고 집을 고쳤고, 쓰레기를 주워 팔아 돈을 마련해 빈민들을 먹였습니다. 조르주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신부님께 방이나 돈을 받았다면,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했을 것입니다. 신부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진짜 살아가야 할 생명력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소유에만 간혀 있으면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참된 생명력은 온 우주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사명에 인생

의 포커스를 맞출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틈을 메우는 사명은 우리의 영혼에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 글로벌 6K 캠페인의 영적 의미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6K 포 워터(Global 6K for Water)’ 걷기 대회입니다.

‘6킬로미터’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매일매일 무거운 물통을 들고 걸어야만 하는 평균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고통의 무게를 몸소 짊어지며 함께 걷는 이 6km의 발걸음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고 속삭이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내 안위만을 위해 성벽을 쌓던 ‘건물주의 야망’에서 걸어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내 삶을 깨뜨리는 ‘조물주의 꿈’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디딘 발걸음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 판테아크와의 땅의 식수 수로가 열리고 무너진 삶의 자리가 보수될 것입니다.

###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건물주’라는 이 땅의 야망에서 ‘조물주’라는 하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글로벌 6K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유보다 나눔의 가치를 펼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워가는 복된 인생, 거룩한 성도, 생명력 넘치는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헌 금

**십 일 조 헌 금** (손만승 방세미) (오석만 김선아) 박지연 (강정훈 황인선) (권혁성 손양민) (김기석 나영임) 김마광 (김주인 김춘강) (김철희 이후남) (김한중 김현숙) 박기순 (박범택 윤옥희) (배운덕 최영숙) 서태희 (안대형 최미숙) (조상현 김현숙) (하중수 강명희) (황한규 유경희) (강용국 노복순) 고원옥 김예린 김은미 (김정문 유은종) (류가운 송현숙) 류한아 (박영식 정명자) (박재훈 김보라) (배덕천 김유임) (백건호 박영옥 백수예) (서정식 이인숙 희운) 성봉구 신경희 신영애 (신일철 이태영) 신재신 양평숙 양용자 (오성안 조삼순) 우철주 유은애 이정희B 이성수 (이성호 강숙희) (이용학 백현애) 이용환 이정분 이진경 (이활 김미영) 장균복 (장만섭 고순문) (장영재 강정희) 정옥자 (채의병 문정은) (최난주 한애선)

**월 정 헌 금** (윤병상 차현일) (조영익 태성희) (고영천 임선영) (김치년 홍주연) 류준혁 (박상근 차용분) 박정숙 박주희 송순호 (심영관 문미영) 엄영숙 윤인숙 윤희열 (이남규 이은선) (이명근 윤영은) 이선주 이은숙 이정임 이희숙 임연희 (임현정 권소운) (조성규 권은정) 차정옥

## 감 사 헌 금

(권혁성 손양민) :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장영철 서금섭) : 심방 감사드립니다.

강정희 : 하나님 우리 인함이 서울지사에 다시 정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출퇴근할때도 하나님이 핸들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자녀손들 주일성수와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길경은 : 항상 곁에 계셔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문기 정건화) : 날마다 새 은혜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유호 문그림) : 목사님, 사모님 심방 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세광 구항모 박선) : 저희의 가정에 임재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덕천 김유임 성진) : 주님 호주 수술이 완전하게 치료해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빨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송현숙 :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혜경 :故이경주 집사의 22주기 추도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진경 :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제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대웅 김주현) : 주님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난주 : 주님!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늘 잡은 손 놓지 않으시고 앞길 인도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애선 : 주님, 동행하시어 국가의 큰 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겸손히 섬김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 일 헌 금** 김소희

**선 교 헌 금** 김예린 이선주 (임현정 권성호) 총여선교회(위클리프)

**맥 추 감 사 헌 금** 고광섭 (김영숙 유하동) 김예원 김태민 이순희 이해순 무명2

**70주년감사헌금 (6K For Water)** (권오진 조고은) (김기석 나영임) (김주인 김춘강) (김준수 최희성) (김철희 이후남) 박기순 (송재용 홍영기) (이수용 인경구) (조순형 백문희) 권은정 (김경행 전치월) (김동수 전순남) (김명중 장계순) (김선옥 구용연) 김연옥 김예린 백건호 (송양근 조혜선) 신경희 신영애 (신일철 이태영) (안학빈 최경아) 이정희A (이동일 최은주) (이용배 김은미) 이용환 이윤진 (이정실 황문연) 이한나 임선희 조영신 (차상옥 석진숙) (채의병 문정은) 최경애 최소연 (최은규 장미자) 추화순 한애선 허지영 총여선교회 6여선교회 7여선교회 8여선교회 9여선교회 설만한물가 웰컴 무명6

# 성도의 교제

## ■ 교회소식

- 맥추감사주일 :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 첫단추 기도회 : 제 4, 9여성교회 주관으로 드리며, 특송 연습이 11시 예배 후에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최진용 목사(United Methodist Church of Westford)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 전교인 6K for Water 행사 : 참여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모임안내

- 아멘 찬양대 연습 : 오늘 오후 12시 5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제6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 회의실2에서 있습니다.
- 장학위원회 회의 : 오늘 첫단추 기도회 후에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 : 조순형, 오석만, 박범택, 김현숙, 김기석, 김수미, 안현수, 장영재, 우철주
- 여성교회 한사랑교회(김희진 목사) 방문 : 8일(수)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 엠마오가는길(KOWE#124 여) : 12일(주일) ~ 15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 교우동정

- 감사 : 지역나눔 반찬봉사를 후원해 주신 류은숙 권사, 박희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 축하 : 한애선 권사께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국제명장 인증서를 받으셨습니다.
- 입원 : 배덕천 권사께서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교직원 휴가 : 손민승목사(7/8 ~ 14)

##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      |                                    |
|------|------------------------------------|
| 영아부  | 7.12(주일)/7.19(주일)/7.26(주일)/ 8.1(토) |
| 유치부  | 7.18(토) - 7.19(주일)                 |
| 유초등부 | 7.25(토) - 7.26(주일)                 |
| 중고등부 | 7.31(금) - 8.2(주일) (국내선교)           |
| 청년부  |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
| 여성교회 | 8.5(수)                             |

##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7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12일(주일), 26일(주일)
- 총목자모임 : 12일(주일) 오후 2시 15분, 찬양대실
-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결과보고 : 19일(주일)

## ■ 금요성령집회(7월 10일)

|    |         |
|----|---------|
| 찬양 | 익투스 찬양단 |
| 설교 | 권오진 목사  |

## ■ 주일아침예배(7월 12일)

|      |        |
|------|--------|
| 대표기도 | 홍영기 장로 |
| 성경봉독 | 정성규 집사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3초원-A
- 다음 주 : 4초원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회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